



후색

아나키정론 Vol.1

흑 색

목 차

「흑색」을 내면서		4
1. '일본', '일본인'이란 뭔가? - 한 '일본인'의 선행	모글리	6
2. 비폭력 대(對) 자본주의 - 서문	브라이언 마틴(번역: 매닉)	11
3. 지역운동과 아나키즘, 그 상생의 가능성	도끼	25
4. 공생의 도구 - 지역통화운동	등대	31
5. 병역거부 전시회를 다녀와서	조약골	37
6. 푸드 낫 밤(Food Not Bomb)에 대하여		
- 푸드 낫 밤 - 폭탄 대신에 음식을	번역: 조약골	40
- 내가 경험한 푸드 낫 밤	네빈(발표, 토론)	43
-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결정한다!	네빈(번역: 매닉)	50
7. 해방의 섬유, 면화	반다나 시버(번역: 매닉)	53
8. 또 하나의 전쟁	리 호이나키(녹색평론 제63호)	63

비폭력 대(對) 자본주의

(『Nonviolence versus capitalism』, London: War Resisters' International, 2001)

서 문(Introduction)

브라이언 마틴¹⁷⁾

비폭력행동(nonviolent action)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 보다 인간적인 사회경제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국가권력을 이용하는 여러 방법들(가령, 국가사회주의¹⁸⁾나 대의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socialist electoralism)¹⁹⁾이 시도되고 있으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멈출 줄 모르는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를 위한 하나의 접근방식으로서, 비폭력 행동은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말이다.

1990년을 기점으로 국가사회주의 시스템이 몰락하면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불가피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이상적 체제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부자는 더욱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는 경제적 불평등을 대규모로 양산하는 것, 전통적 문화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진정한 공동체 문화를 결여한 획일화된 소비문화를 심어놓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또 엄청난 환경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자원 고갈의 주범인 동시에 체제에 맞지 않는 주변부 사람들을 더욱더 주변부로 밀어내면서 대다수의

17) 브라이언 마틴(Brian Martin)은 진보적 성향의 과학자로서, 1970년대부터 환경운동과 평화 운동에 동참하며 이 분야에서 폭 넓은 저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울런공 대학(University of Wollongong) 과학기술학부에 재직 중이다.

18)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19)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노동자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대량의 상품들을 쏟아내는 엄청난 생산력을 지닌다. 그것은 다른 체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물질 획득에 대한 욕구를 생산성에 붙들어 맨다. 자본주의는 시장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보편적인 방식으로 공급함으로써 여러 나라의 물질적 생활 기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분명 자본주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자본주의 체제가 가진 약점들을 정말로 문제 삼을 수는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자본주의를 불가피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여러 개선책이나 대안을 모색하고 증진하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명에 불과하다. 한 사회가 조직되는 방식은 사람들의 행동양식들에 기인하며, 이러한 행동양식들은 역시 변화하게 되어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인간의 사회적 행동양식들은 매우 넓은 범위에 걸쳐 다양하게 펼쳐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일이나 소통방식, 사회적 행동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선택들이 생겨나고 있다. 불과 몇 백 년밖에 안 되었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짧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또 현 제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데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가 불가피하다는 가정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단지 두 개의 기본적인 선택지들을 가정한다. : 자본주의냐, 아니면 권위적인 정부에 기반을 둔 다른 체제냐, 또는 국가사회주의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독재체제냐 (여기서 자본주의는 대의제와 한 짝이 되는 것으로 늘 가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파시즘이나 군사독재처럼 자본주의 경제체제이면서 권위적인 정권을 가진 나라들을 간과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이외에도 경제와 사회를 조직하는 다른 대안들이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어떤 대안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연구하고 판단하는 일이다.

자본주의는 결코 완성된 체제가 아니다. 아주 이질적인 대안들을 제쳐둔다 해도 그것은 아직 불완전하다.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계속 외부에 의해 혹은 내부에서 스스로 변화될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자본주의가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다.

20세기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두드러진 전략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그 하나가 국가사회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대의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였다. 소비에트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볼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이름을 내건 혁명정당이 국가 권력을 차지

해 사유제를 폐지하고 모든 것을 국가의 소유로 환원시켰다. 그러나 공산당은 새로운 억압적인 지배체제를 만들어내고 말았다.

대의제 사회주의는 선거제를 통해 국가 권력을 차지해 국가 소유를 확대해나가고 자본가들에게 규제를 가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 나가려는 시도로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지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불러오지 못하고 흐지부지 실패하고 말았다. 오히려 좌파 정당들이 기존의 민주주의체도를 통해 자본주의의 허수인물로 전락하는 등, 결과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좌파 정당이 자신들의 적과 동일한 정책을 선택함으로써 똑같이 닳아가게 되었다.

자본주의, 국가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국가 권력에 의존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를 지배하려는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매달리고, 국가사회주의는 경제와 정치 시스템 모두를 장악하기 위해 국가 권력에 매달린다. 한편 사회민주주의는 경제 운용을 위해 국가 권력에 의지하려 한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즉 사회 지배를 위해 권력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폭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들 셋은 매우 공통적이다.

비폭력행동은 국가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주의에 근본적인 도전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전단지 돌리기, 파업, 보이콧, 시위행진, 연좌농성, 불복종, 대안조직 만들기 등 수백 가지가 넘는 비폭력 행동방식이 존재한다. 이 방법들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어왔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간디가 이끌었던 인도 독립운동일 것이다. 그 외에도 1900년부터 나타난 가장 잘 인용되는 비폭력 운동의 리스트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점령에 대한 핀란드의 저항, 1899 - 1904.

독일에서의 군사 쿠데타, 카프 반란에 대한 저항, 1920.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의 루르(Ruhr) 점령에 대한 독일의 저항, 1923.

인도에서 있었던 간디의 운동, 1920년대 - 1940년대.

중남미 10개 군부독제의 몰락, 1930년대 - 1950년대.

나치의 점령에 대한 유럽의 여러 저항운동, 1940 - 1945.

미국의 시민권 운동, 1950년대 - 1960년대.

인도와 스리랑카의 사르보다야(Sarvodaya) 운동²⁰⁾, 1950년대부터 계속.

20) 인도와 스리랑카에서 전통적 촌락을 기반으로 시작된 공동체 운동

알제리 군장성의 반란 실패, 1961.
 소비에트의 공격에 대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저항, 1968.
 이란 혁명, 1978-1979.
 여러 국가에서 일어난 반핵직접행동, 1970년대부터 계속.
 벌목, 대형 댐,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운동, 1970년대부터 계속.
 마르크스 독재를 무너뜨린 필리핀 민중의 힘, 1986.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1987 - 1993.
 중국 민주화 운동, 1989.
 동유럽 정권의 붕괴, 1989.
 소비에트의 쿠데타 좌절, 1991.
 남아프리카 인종차별 정책의 폐지, 1990년대 초반.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하르토의 사직, 1998.
 세르비아 통치자 밀로세비치의 해임, 2000.

위에 열거한 것들은 폭력을 쓰지 않고 침략과 억압에 저항한 비폭력운동의 사례들이다. (물론 비폭력 활동가들에게 폭력이 가해지는 일은 많았다) 위의 예에는 군사 침략에 대한 저항, 탄압적인 정권으로부터의 해방,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이나 비민주적 관행의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여성운동과 환경운동과 같이 수많은 사회 운동의 주요 활동 방식에서도 비폭력 행동이 채택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그 자체에 저항하는 비폭력행동의 예는 있는가? 언뜻 보면 위에 열거한 예들 중에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겨냥해서 조직된 행동들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위의 예들처럼 비록 극적인 수준의 비폭력운동은 아니지만, 자본주의의 여러 국면에 저항하는 비폭력행동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면,

- 파업, 불매운동, 합법 투쟁이나 공장 점거와 같이 더 나은 임금 및 조건을 쟁취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기 위해 자본가들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행동
- 자본주의적 소유권과 경영권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노동자 관리와 조합
- 유해 산업, 유해 상품, 새로운 산업개발정책에 대항하는 환경운동
- 상업적인 산업개발에 반대하는 지역운동 (타 지역 운동과 자주 연계됨)
- 건물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비판, 도전하기 위해 빈 건물을 점거하는 스쿼팅운동
- 세계은행이나 다자간투자협정(MAI)과 같은 세계 기구나 협약이 자본의 권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에

반대하는 전 세계적 규모의 운동

- 유전자 변형 곡물에 반대하는 직접행동.

이렇게 뚜렷이 부각되는 활동들 이외에도 자본주의 사회 곳곳에 숨어서 이에 도전하는 비폭력 행동은 무수히 많다. 예를 들어, 상업주의와 상품문화의 꽃이라고 하는 광고를 생각해 보자. 광고 메시지를 거부하는 행위들(가령, 메일 박스에 "스팸메일 거부"를 표시하는 것), 특정 광고 스타일에 반대하는 캠페인, 광고판 위에 낙서하는 행위 등등이 해당될 것이다.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비폭력 행동은 산업혁명 초기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선 1999년 11-12월 시애틀 시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을 비롯한 세계 경제 기구를 반대하는 워싱턴과 프라하, 맥버른 등지에서의 집회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지속되었다. 한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비폭력 행동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비폭력 운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신에, 반자본주의 운동 내부에서는 무장투쟁을 포함한 계급투쟁의 수식어들이 부각되기 일쑤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진영 내부에서는 비폭력 운동을 완전히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비폭력에 대해 글을 쓰거나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반자본주의적 시각을 무시함으로써 그 문제는 더욱 커진다. 비록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이 간디가 벌인 캠페인에 있어서 주요한 목표들 중의 하나로 걸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간디가 구상했던 마을 자립적 자치민주주의 프로그램은 분명 반자본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간디 이후의 비폭력 사상가들은 자주 자본주의를 간과하는 우를 범했다. 이것은 비폭력의 이론적 기반이 된 진 샤프(Gene Sharp)의 '동의 이론(consent theory)'에서조차도 찾아볼 수 있다. 샤프의 이 모델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분법을 가정한다. 피지배자가 동의를 철회하면 지배자의 권력이 허물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 모델은 군사독재처럼 지배자가 분명한 경우에 가장 잘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자-피지배자 모델의 관점에서만 보기에선 자본주의는 더욱 복잡한 체제이다. 예전에는 상위에 소수의 소유자와 지배자가 있었다면(물론 지금도 빌 게이츠나 루퍼트 머독 같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점점 소유권은 주주들에게, 경영권은 각 기업 관리들 내부에 분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볼 때 "동의를 철회한다."라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대기업을 보이콧 할 것인가? 상사의 명령을 매년 거부해야 하는가?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

장 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배자-피지배자 모델이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자본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재 정권보다는 훨씬 견고한 체제이다. 시장체제는 사람들을 그 시스템으로 끌어들여 그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어버린다. 반면 독재체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나 혜택을 제공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패와 부정은 자본주의체제와 독재체제라는 양쪽 시스템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독재체제 하에서 부정을 짚어내는 것이 더 용이하다. 비폭력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독재체제는 '쉬운 상대'이다. 독재체제 하에서는 저항할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민중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는가로 좁혀질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다 복잡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비폭력 운동 중에서 성공적이라 꼽을 수 있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사전 계획이나 어떠한 훈련 없이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들이다. 1920년 독일의 카프반란(Kapp Putsch), 1961년 알제리의 군장성의 반란, 1991년 소련의 쿠데타와 같은 군사 쿠데타에 시민들이 저항한 경우가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보통 쿠데타는 예고도 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폭력 저항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조직된다. 팔레스타인의 인티파다와 같이 좀 더 장기간 진행되는 투쟁의 경우에도 사전에 계획하거나 훈련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 갑자기 터져 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지도부를 놀라게 한 인티파다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유기적으로 성장한 운동이었다.

민중 스스로가 무엇을 바꿔야 할 것인지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운동은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 군사 쿠데타의 경우,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물러나고 기존의 사회가 이전 상태로 회복되거나(또는, 더 나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된다. 인티파다 운동은 이스라엘 점령의 종식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서의 전술의 변화였다.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의 테러리즘 전술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자,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비무장 행동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 자발적인 비폭력 행동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다.

간디는 비폭력 행동을 조직하는 데 있어 뛰어난 선구자였다. 그는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사회 변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부로 여기면서 행동을 함에 앞서 치밀한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훈련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의 비폭력 행동은 미국 시민권운동이나 반핵운동과 같은 수많은 사회운동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가슴에 크게 각인 되었다.

비폭력 활동가들은 충분한 준비가 부족하면 목표설정이나 타이밍에 실수가 생기고 계획했던 행동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사회 분석, 공동체 교육, 비폭력 훈련 등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잘 계획된 비폭력 행동은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의 보다 깊은 근원에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복잡한 억압의 시스템을 파고들어갈 수 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은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행동이지만 노사관계에는 근본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 더 큰 발언권을 요구하는 생산관리쟁의(work-in)²¹⁾는 보다 근본적인 관계변화에 그 목표를 둔다.

레닌주의와 대의제에 의존하는 사회주의는 늘 간접적이고 비자발적인 방향으로 전략을 잡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 전략 속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은 자신들을 부려먹는 바로 옆에 있는 사장들과 같은 착취자들에 대하여 직접 행동을 조직하기보다 노동자들을 대표한다고 선전하는 정치 정당을 지지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명백한” 타깃인 자본가에 대한 직접행동 대신에 정당 건설이나 선거 유세에 더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선전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설득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반자본주의 비폭력 활동가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배울 수 있다 : 노동자들이나 기타 사람들은 사회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용한 비폭력 전략을 개발하는 일이다.

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데에 비폭력행동이 필수적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 자본주의 하에서는 착취와 억압이 교묘하게 포장된다. 물론 이런 포장은 자본주의에만 해당하는 새롭고 독특한 현상은 아니다. 대부분의 착취와 불평등 시스템은 왕의 신성불가침한 권한이건, 카스트 제도의 천부적 권한이건 간에 이런 저러한 논리로 정당화된다. 하지만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런 눈가림은 다른 체제보다 더 알아채기 힘들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상업에 있어서의 착취(예를 들어, 컴퓨터를 사기위해 바나나를 팔아야 하는 경우)는 경찰의 구타나 고문처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1800년대 중반에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상품경제에 숨어 있는 속임수에 대해 기술했지만 여전히 자본주의의 착취는 전면에 노출되지 않고 숨겨진 채로 남아 있다.

정보(기록, 컴퓨터 프로그램, 통신, 그 밖에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의 역할은 자본주의 경제

21) 파업한 노동자가 절거한 공장을 직접 경영하는 것

에서 더욱더 확대되면서 자본주의의 억압체계를 보이지 않게 하는 데 한 몫 한다. 정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종종 '허위정보'(의도적인 거짓이나 부분만 진실인 정보)를 뿌린다. 기업과 정부는 유리한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불리한 사실들을 은폐시키기 위해 공공의 관계를 이용하여 정보를 조작한다. 광고는 사람들이 상품을 문제의 해결책으로 은연중 받아들이게끔 유도하면서 전체 상품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떨어뜨린다. 헐리우드의 영화산업은 삶에 대한 멋들어진 거짓 이미지들을 제작한다. 그 결과 매혹적인 정보 과잉의 환경이 만들어진다. 반대의 견해들은 때론 검열되곤 하지만 시장의 주변부에서는 받아들여지는데, 이는 진정한 사상의 자유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곤 한다.

정보 과잉의 환경은 비폭력 활동가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준다. 전통적인 간디의 불복종사상(사티아그라하, satyagraha)에서는 대화를 통해 진리를 찾는다. 여기에는 반대자들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비폭력 행동이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탄압과 억압의 현상이 보다 명백하고 그 근원이 보다 확실할 경우, 분명히 눈에 보이는 반대자가 있어 활동가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중재를 통해 대화에 끌어들이 수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본주의 억압의 대부분은 소유권과 교환체계에 꼭 맞물려 있다. 즉, 변화를 위한 행동에 끌어들이 수 있는 명백한 반대자들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현실'을 생산하는 시스템이 워낙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서 진실한 담론을 간파해내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이것이 비폭력행동이 효과적으로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는 데에 있어 더 심도 깊은 분석과 세심한 계획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이다. 그래서 정보 과잉(정보 왜곡과 불균형을 포함해서)을 기반으로 한 체제는 정보 검열에 기반을 둔 체제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비폭력행동을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전략으로 보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간 비폭력행동은 자본주의 내에서 부분적 개혁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파업, 보이콧, 준법투쟁, 시위와 같은 것들은 노동자의 임금과 작업조건을 향상시키고 유해한 상품 생산을 반대하고 파괴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던 방법들이다. 모두 매우 가치 있는 행동들이지만 하나의 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그 자체에 도전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비폭력행동은 혁명적인 전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사회관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하는 '혁명(revolution)'은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적인 수사이다. '개혁(reform)'은 쉽게 부패하고 역전되는 혁명보다 더 지속적인 효과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웬지 미적지근하고 불충분해 보인다. 레닌주의 전략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비폭력

행동에 의존하지만 지배 계급을 몰아내는 '성숙된' 국면이 오면 폭력에 의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신을 혁명가로 지칭하는 사람들은 비폭력을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간디, 자야프라카쉬(Jayaprakash), 나라얀(Narayan), 에릭 대만(Erik Damman) 등에 의해 주창된 비폭력 혁명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혁명의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폭력적이고 남성적인 측면을 버리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평등, 정의, 진실, 참여라는 목표와 방법에 입각해서 혁명을 다시 사고하는 일이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단어가 이미 광고기 획자들의 손에 넘어가버렸고 다른 단어들도 이와 비슷한 실정이라는 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어찌되었건, 비폭력 행동이 자본주의에 대항해서 그것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면 단순히 개혁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여기서 그 해답은 '전략'이다. 비폭력이 자본주의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비폭력 양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분석과 사회문제(Social analysis and social problems)

효과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전자변형 곡물에 대한 반대 운동의 경우 환경 유해성에 대한 정보, 농부들과 유기농 재배에 미치는 영향, 여기에 정부, 기업의 전략과 어떻게 그 전략들을 뚫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안목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과 안목은 고도화된 과학 테크놀로지의 영역에서는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대학이나 연구소의 지적 작업은 점점 고도로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 생화학이나 컴퓨터공학 같은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는 전문화의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연구원들을 고용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나 대기업들만이 연구 작업들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운동 단체들은 연구원을 고용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연구를 진행할 능력도 자금도 없다. 군사 연구나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의 10분의 1정도만 있어도 비폭력(nonviolent struggle) 연구에는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이다.

연구자를 고용하거나 자금을 댈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 운동은 운동에 동조

하는 연구자들이나 학자들의 자발적 도움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비록 흥미 있는 실천적 주제들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동료 학자들과 소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대학 시스템이 추켜세우는 인재는 연구 간행물에 자신의 연구를 발표한 학자, 다시 말해 동료들에 의해 비판적인 검토를 거친 학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운동가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가 아니라 동료학자들에 어떻게 어필하는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이러한 연구 시스템은 심지어 운동에 동조하고 있는 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학자들에게 있어 연구의 기본은 이론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방향이 되고 대안이나 전략을 연구하는 것에는 매우 소홀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런 유형의 작업도 매우 가치 있고 고무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다 사회 참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한 기반으로는 부족하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저 위에서 이론가에 의해 정립되고 베테랑 운동가들(movement gurus)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아닌 일반 활동가들에 의해 늘 활용되고 수정될 수 있는 이론이다. 사회 운동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대부분은 가부장제의 개념, 대안, 전략을 포함하는 페미니스트 이론의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실천적 페미니즘'은 학문적인 페미니즘과는 상당부분 괴리가 있다.

때로는 저비용의 연구 프로젝트가 활동가들에 의해 수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터넷 정보검색과 다른 활동가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귀중한 자료들을 얻는다.

비폭력 운동 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비폭력 이론, 특히 비폭력 행동의 방법론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비폭력 이론은 비폭력 실천으로부터 생겨났고 다행히 다른 분야에서 처럼 과도하게 '학문화'되지 않았다. 이는 그 분야에서 출세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폭력 이론을 자본주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적절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이 분석은 물론 활동가들에 의해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본주의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신고전주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또는 비(非)마르크스주의 정치 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적 전통 내에 광범위한 저작들이 존재한다. 비폭력 활동가들에게 유용한 견해도 많지만 그것들을 추출해내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대부분의 저작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무비판적이고 몇몇의 비판적인 저작들도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전략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이론가들의 만찬에서 활동가들이 얻는 것이라

곤 빵부스러기가 전부인 실정이다.

차라리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에서 먼저 출발해서 대안을 실현시킬 방법을 강구하면서 활동가 친화적인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적 접근법이 될 것이다. 비폭력에 있어 대안과 방법론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비폭력 사회는 비폭력 행동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책에서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이다. 방법인 동시에 목표인 비폭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비폭력”이란 말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물리적 폭력의 부재’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와 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자본주의는 비폭력 행동을 이용하여 어떻게 대항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분석되어진다. 물론 자본주의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여러 분석들을 차용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분석을 하고 나서 그 적용을 강구하기보다, 비폭력 행동에 적합한 수준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분석이란 활동가들에게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분석은 학자들 자신 이외에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다.

말할 필요도 없이 내가 여기에서 바라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론과 사상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 책을 통해 실천과 긴밀히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개요(overview)

활동가 친화적인 분석의 시점에서 2장에서는 비폭력, 주요 방법론과 사례들 소개, 비폭력에 대한 찬반양론, 이론에 대한 점검 등을 다룬다. 비폭력 이론과 실천을 접해본 사람이라면 매우 친숙한 장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처럼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그래서 억압을 인식하기 어려운) 지배 시스템에 대항하는 데 있어 비폭력이 가진 약점을 이론적 수준에서 고찰해본다. 지배 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해 비폭력 이론이 더욱더 보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전개될 것이다. 권력에 대해 보자면, 활동가들 대부분이 권력의 작동체계에 대해 훌륭한 실천적 안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폭력 이론은 실제적으로 잘 적용된다. 이처럼 독재체제와 같이 명백히 눈에 보

이는 지배 시스템 하에서는 비폭력 이론이 성공적이지만, 자본주의처럼 분산된 시스템 하에 서는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활동가들에게 필요하다.

비폭력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3장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해 고찰한다. 간략하나 마 노동자 착취와 같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도 짚어본다. 이 장에서는 주로 비폭력 전략이 유효하게 적용될 자본주의의 중요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논한다. 첫 번째는 누구나 알다시피 자본주의가 정부, 군대, 경찰과 같은 폭력의 시스템에 기반을 둔 체제라는 점이다. 폭력이라는 궁극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자본주의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폭력의 시스템이 일상화된 시장경제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폭력에 기반을 둔 시스템에 도전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비폭력 행동의 이상적 목표이므로 자본주의의 폭력 기반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비폭력 행동을 구상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관건이다.

그러나 한편,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폭력에 의존한다 해도 소비주의, 재산, 지위, 개인 주의와 관련된 신념체계와 일상적인 행위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념과 일상에 도전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또 비폭력 행동이 하나의 방법론을 제공하지만 모든 행동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능한 대안들을 아주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강조하자면,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여야 할 것은 바로 신념과 일상에 관련된 영역이다. 자본주의만큼 온갖 이데올로기적인 도전들을 자기 것으로 전유하는 능력을 갖춘 체제도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세 번째 측면은 비폭력 전략의 개발과 특히 관계있는 것으로서, 바로 다른 대안들을 파괴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생성 무렵에 함께 존재했던 체제나 대안(적인) 실천 들, 예를 들어 공동체관리생산, 협동조합, 공동농장 등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주변화 되었다. 자본주의가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러한 여러 대안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비 폭력 전략의 목표는 간디의 사회건설 프로그램 전통을 이어받아 대안사회를 건설하는 일임 이 분명하다. 그러나 대안을 파괴하고 찬탈하는 자본주의의 힘 앞에서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4장은 기존의 반자본주의 전략들에 대해 간략히 점검해본다. 특히 레닌주의와 대의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를 비폭력 이론의 렌즈를 통해 비추어 본다. 비록 사회민주주의가 자본 주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데 일정정도 기여했다고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자본주의를 더 나은 체제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에 성공하지 못했다. 비폭력의 관점

에서 보면 이 이론들의 가장 큰 문제는 변혁을 이루기 위해 국가권력이라는 폭력에 의존한다는 데에 있다. 폭력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 지배세력을 지지하고 저항하는 자들을 탄압하는데 폭력이 쓰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그러하고 과거에도 그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반자본주의 전략은 민중에게 약간의 힘을 실어주었을 뿐, 공산당 간부이건 사회민주주의 정부의 정치가나 행정가이건 그 지배그룹에 막대한 권력을 쥐어주게 된다.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전략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비폭력 전략이 더욱 부각된다. 비폭력 전략에 가장 큰 적대감을 보인 그룹은 사회주의자들이었는데, 현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폭력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전략들이 하나 둘 실패한 지금은 비폭력 전략이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장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폭력 대안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조직화된 폭력 없이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원리들을 타진해 본다. 사실 비폭력 원칙에 입각해서 제시된 사회 비전들은 그다지 폭넓지 않다. 가능한 몇 가지의 모델들 중 내 가치를 추려보면 : 사르보다야(sarvodaya), 아나키즘, 자발주의(voluntaryism), 데마키(demarchy)²²가 그들이다. 이 모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극적인 폭력체제가 없다면 현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목표와 수단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비폭력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자기일관성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비폭력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폭력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비폭력 사회의 모델을 검토하는 것은 비폭력이 가진 자기일관성을 가다듬고 더욱더 개선시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방법론, 비평, 대안을 살펴보고 나면 전략을 점검해보아야 할 시간이 돌아온다. 6장에서 12장까지 다룰 내용은 구체적인 비폭력 전략에 관한 것이다. 6장에서 다룰 주제는 전략을 평가하는 원칙에 대한 것이다. “이 운동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하는 질문을 포함해서 운동을 평가하는 짧은 체크 리스트를 제시한다. 이 체크 리스트로 실제 있었던 일련의 운동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그 다음 장들에서 가져본다.

7장은 노동운동을 검토해본다. 임금인상, 작업환경개선, 노동자 자주관리, 그린벨 운동²³, 내부고발 등의 노동운동 전략들이 포함된다. 노동자 자주관리와 같은 운동은 자본주

22) 호주 철학자 존 번하임(John Burnheim)이 처음 쓴 표현으로서, 국가나 관료에 의해 통치되는 정치시스템이 아니라, 제비뽑기로 선출된 그룹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 시스템을 일컫는다. 이 그룹들은 공공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23)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에의 취로 거부

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운동들은 그렇지 못하다. 미리 말해두지만 꼭 자본주의의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운동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 때문에 그 운동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8장에서는 비폭력 행동을 넘나드는 위치에 있는 사보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9장은 농약,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정책에 저항하는 몇몇 운동들을 통해 환경운동 전반을 검토해본다. 10장에서는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군사안보의 대안이자 비폭력 공동체의 저항방식인 사회방어(social defence)에 대해 분석해본다. 11장에서는 기업 중심의 세계화에 도전하는 세 가지 운동인 다자간 투자협정(MAI) 반대 운동, 유전자 조작 반대 운동,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에 초점을 맞춘다. 12장에서는 공동체 교환 경제(community exchange scheme), 지역통화, 자발적 가난(voluntary simplicity) 등 몇 가지 경제적 대안들을 검토해본다.

7장에서 12장까지는 체크리스트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설명하는 장들이다. 즉, 비폭력 분석을 통해 비폭력 전략들이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기에 제시된 평가들이 꼭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활동가들이 자기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각자의 목표에 맞게 운동과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사회운동과 더 미묘한 문화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번역 : 매닉)